

“선택의 기쁨: 과거, 현재, 미래의 전환”

Kathy Taormina, OFS, Tim Taormina, OFS and Lori Hinker, OFS

이사야 12 장:5~6 절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가 큰일을 하셨다.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번주에 여러분들은 박식한 학자분의 말씀, 신학자 와 영재 설교자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분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으며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신비로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께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를 가르치거나,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미래의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예언을 하려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던 보통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그들이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는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살았던 역사의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하게 했는가? 그들은 왜 변화를 선택했는가? 자신의 회심 후 급진적인 가난한 사람,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된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의 모범을 무엇이 그들이 따르게 했는가? 왜 프란치스코의 생활방식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다들 알다시피, 중세기는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중산층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가톨릭 신자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가족의 허락 하에 신앙생활은 할 수 있었는데 주로 수도원 생활 이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들의 지위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했다. 재속인으로 가톨릭신앙을 실천하고 필요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더 깊은 신앙 생활을 위해 성녀 글라라의 어머니 가 하셨던 참회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설교술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했는가? 그들의 가톨릭 신앙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새롭고 다른 생활방식을 제공한 프란치스코의 삶의 방식이 어떤 본보기가 되었는가? 믿음과 소망과 자선의 불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타올랐던가?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향기 (Aroma) 로 묘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시골에 어떤 향기를 풍겼을까? 그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불렀다. 그것은 하느님의 향기였다! 사랑의 향기였다! 그의 삶의 방식의 향기, 그의 자비의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어떤 말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여 들였다. 프란치스코 자신의 회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의 삶에서 익숙했던 것처럼 고행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쁨처럼 보였다.

회심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때 우리는 그분과 형제가 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서언, 제 1 장)는 것을 기억합시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분의 형상 과 닮음으로 만들어 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알려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 들이라고 불리우질 특권을 얻을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주님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정말 회심의 순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는다.

프란치스코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는 법을 그의 모범을 통해 보여 준다. 만약 그가 하느님의 아이였다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병환자의 가장 낮은 버림받은 자부터 교회의 가장 높은 주교까지 그는 그들 모두를 존중했고, 그들도 주님의 자녀들 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없는 것 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작은” 것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회심하는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가졌을 때 그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 걱정하질 않았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 다른 분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최고가 될 필요가 없었고, 오로지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부족함,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죄까지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바깥 층 너머를 볼 수 있었다. 그가 본 모든 것은 사랑이 필요한 하느님의 자녀였다.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사랑과 수용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나는 프란치스코의 회심이 주님의 영감의 물결과 성령의 내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성체

그의 글과 이야기는 성체에 대해 그의 깊은 사랑을 말한다. 길을 따라 성당과 소성당을 쫓고 다니는 것부터, 사제들과 성체를 봉헌하는 그들의 손을 존경했다.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 손으로 만지고, 마음과 입으로 영하며, 다른 이들이 영하도록 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이 여러분 전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겨 두지 마십시오"

기도 중에서

우리 모두 프란치스코의 기도 시간을 알고 있다. 그는 활동적인 사역보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프란치스코에게 기도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생명줄 이었다. 기도는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자 지원이며 확고 부동한 것 이었다. 이것은 능동적인 사도직에서 부터의 설교, 그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는 기도에서 시간을 빼앗지 않는 한 학문에 대해서 반대하질 않았다.

창조를 통해서

프란치스코에게 창조는 하느님이 주신 살아있는 복음이었다. 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창조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창조물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인간의 자질을 주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훌륭한 선물 이 무엇 인지 깨닫게 하였다. 그는 가장 작은 벌레부터 환자를 옮기는데 사용되는 당나귀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감탄하였다.

창조를 통해 그의 주변세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회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창조의 사랑을 보살핌과 구절을 통해 나누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감사해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회개, 용서와 평화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심을 통해 회개가 그것을 따르는 용서보다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개를 통해 겸손해진 것이다. 회개를 통해 회심이 된 것이다. 회개를 통해 인내심, 타인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회심과 회개는 맞물리며 자비와 용서가 뒤 따른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두가지의 선물이다. 자비와 용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프란치스코도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전생을 용서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의심을 용서하는 것 일수도 있다. 프란치스코의 용서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용서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그가 우리에게 준 영원한 선물은 항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물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용서와 죄사함을 받기위해 가서 싸울 필요가 없기 위해 프란치스코는 포르치운쿨라 면죄부를 승인 받기위해 애썼다. 그는 전쟁과 폭력이 결코 사회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놓아주기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언제 놓아주고, 옆으로 비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끌도록 해야 하는지를 아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너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거나, 우리의 생각이 항상 최선이라고 하거나, 항상 우리가 책임자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프란치스코회를 축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을 살고, 형제들이 그의 주위에 모이자, 평민들도 그의 생활 방식에 끌렸다. 그들은 이미 그 당시의 참회운동에 빠져 있었던가? 아마도. 어쩌면 그들과 닮은 사람이, 그들 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옷을 입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 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또 그분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 않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들이 변화를 보았든 보지 못했든 그들의 일상 생활에 신경을 쓰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보살핌 과 예수님의 형제적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 프란치스코는 미사가 거행될 수 있게 교회를 재건하고 청소하였다.
- 그는 성체 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어 빵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 궁극적인 선물에 대해 설교하였다.
- 그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 창조 하여 하느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형제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도록 하였다.
- 프란치스코는 나병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돌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기 위해 정원에 꽃을 심는 것을 가르쳤다.

왜 프란치스코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든 그를 따르고 싶지 않았을까? 그들은 우리 주님의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의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에 휩쓸렸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쓰여진 생활양식을 프란치스코에게 부탁한 그들의 선택에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하느님의 종 (Servant of God) 도로시 데이 (Dorothy Day)는 "...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죄와 증오를 태워버리는 것은 사랑이다. 서로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희생도 고통도 없다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트랜지투스(transitus) 과 죽음 이후에도 프란치스칸 정신과 향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움직였고 점점 더 많은 추종자들을 끌여 들였다.

추종자들은 함께 모였고 형제자매들의 무리로 마음과 영혼의 교감속에서 살고 싶어 했고, 그의 회심과 설교, 만민에 대한 사랑으로 지구의 얼굴을 근본적으로 바꾼 창시자를 기억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의해 지어진 기초위에 놓여진 우리 앞에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향기는 강하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오래도록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나는 과거를 조사했고 이것이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 형제자매여러분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살아있고 잘 있다는 것을 피닉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많은 재속회원들 앞에 서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 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느낌과 어떻게 재속 회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생활양식을 선택하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재속회원분이나 프란치스코회 신부님 혹은 수녀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나 글라라를 만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Winston-Salem, North Carolina 에 있는 Our Lady of Mercy Catholic Church 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미사는 1987 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날 Fr. Canice Conners, OFM Conventual 신부님이 교회안의 회중석의 중앙통로로 해서 리놀룸 바닥까지 당나귀를 끌고 오셨다. 당나귀는 갑자기 멈추어 다리를 짝 벌리자 Fr. Canice 는 이 당나귀 더 잡아당기지 못 하셨다. 오직 프란치스코회 수사 만이 살아있는 당나귀를 미사에 데리고 오신다! 저는 그때 이 사제들에 대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이것을 아시시와 관련 지었다. 프란치스코는 주교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그의 소지품을 다 버리고, 그의 삶을 하느님께 바쳤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급진적인 행동 이었던 것을 알았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자주 프란치스코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은 또 우리의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급진적에 대한 한가지의 정의는 아주 새롭고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도록 밖에 나가 있는가? 이것이 제가 앞서 말한 우리가 최고의 비밀이라고 했던 참조 사항이다. 우리가 왜 비밀인가?

프란치스코는 밖으로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관련하는 것을 두려워하질 않았다. 그는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그에 대해 말했고 주님의 대한 그의 사랑을 만났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다. 제가 Fr. Canice 가 그 당나귀를 잡아 들이는 것을 본 것 같이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는 모든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라는 프란치스코가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우리 형제회의 모임에 초대하질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티모시는 무엇이 두려운가? 솔직히 저는 저의 재속회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왜 그들을 와서 방문해야 하는 이유 혹은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종신 서약식에서 하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읽었다.

“나 티모시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서원을 새롭게 하며, 주님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일생동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복음적 생활의 서약 예절)

저에게 말한 핵심 문장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왼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보십시오!
다시 말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소를 통해, 프란치스칸적 포옹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 방은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달려갔을 거예요!

이곳을 떠날 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불을 붙이고 떠납니다. 아직도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불태우며 떠납니다! 우리 회심의 이야기가 19 개의 Q 모임, 즉 우리 회칙의 800 년동안에 온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 회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급진적인 유산을 이어 가는 것이다.

“성공은 끝이 아니다, 실패는 치명적 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다” 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을 하고, 갑자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이 진술들이 나에게 말을 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행복하고 이해력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하느님과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지난 5 월에 나는 아시시에 있었다.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 옆을 줄지어 걷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의 존재와 그가 대표하는 것에 멈추어서 인정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흠긋즈에 들어 갔을때, 나는 프란치스코를 보았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프란치스코를 세상이 필요할 때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계급의 분열속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는다. 스위스의 신비로운 쥘델 신부님은 “... 우리는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물론 그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인용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과 우리가 증언한 서약을 반영하지 않은가?

"... 우리는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급진적 인 움직임에 하도록 도전합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이 저처럼 이것을 할 자신이 없었다면 그 급진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더 이상 최고의 비밀이 되지 말고, 프란치스코처럼 됩시다!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섬겼다. 오늘날 살고 봉사하는 재속 프란치스코로서 우리는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방식 과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디지털 존재와 자신을 공유하는 사람들 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가 주는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다 하던지, 또는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구시대적인 변명은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겐 형제회 안에서 서로가 있어 우리를 가르치고 돕는다.

지난 2 년동안은 힘들었다고 인정한다. 팬데믹은 우리의 재속회를 활동적이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만나는지를 바꾸었다. 줌의 활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소개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비록 그것이 전자 적이라 할지라도 형제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중요했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것이 우리가 양로원에 있거나, 집에 갇힌 형제 자매들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형제회의 모임에 연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아마도 한 두명의 회원들에 의해서만 소식지를 받거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작은 기적으로 봤다.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회에 있기를 원했던 모든 이에게 개방함으로써 아시시 마을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손을 뻗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종종 프란치스코나 글라라가 전 세계의 모든 형제회들과 연결 하기위해 줌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회칙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함께 있기를 요구하고, 육체적으로 다시 형제회 안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회칙이 위원회와 평의회와 거리상 멀리 있는 지역들이 줌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프란치스코는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예술가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인식과 소통의 예술가들이 되자!

우리는 지난 몇년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왔다. 여기 Q 모임에 있는 우리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면 프란치스코의 인용문이 우리의 본질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 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희년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우리 모두 피닉스로 순례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고, 울었고, 경험들도 나누었다 그리고 오늘 서비스 프로젝트와 미사 와 음악회로 이 회의를 마친다. 이와 같은 축하 행사가 그냥 끝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각자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재속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피츠버그 토박이로서 미식축구를 아주 좋아한다. 펜실베니아 있는 대학교에서는 미식축구 시합 때에 응원대장이 "우리는"이라고 고함지르면, 관중들은 "펜스테이트!"라고 대답하는 응원이 있다.

나는 오늘 이 벽에서 새로운 환호가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제가 "우리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프란치스칸!" 이라고 하세요. 제가 들을 수 있게 다시 해보세요!

우리는 - 프란치스칸! 우리는 - 프란치스칸!

지구가 이 말들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 수도회에 대한 사랑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라!!

나는 현재를 보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에 대해서 생각 하세요? 미래에 할 여행과 모험들?
미래에 있을 가족 기념행사들? 평화와 사랑이 죽음과 파괴를 정복하는 미래?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지 못한다. “우리는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 라는 이디시어 속담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었을 일은 아마 백만가지, 한 가지일 것이다.

에레미야서에서 “내가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번영 시키고
해치지 않을 계획이며,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계획이다”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질 때까지 명성과 재산을
위해 계획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느님께 드리는 그 질문은 성 프란치스코를 넘어 확장되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래의 뜻은 “현재 이후에 올 시간의 기간이거나, 그때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정의한다. 미래의 세계를 생각해볼 때 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희망, 기쁨, 열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않았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이 아니고,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종교단체, 특히 그리스도인의 단체의 소명이나 불림은 온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명은 '보냄'을 의미한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회심하는 것이다.

회칙 제 6 장:

“회원은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 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서 교황 성하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와 긴밀히 결합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불림을 받았다. 회원들은 서로들 사이에서 단결을 장려하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의 단결도 장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청년들”이란 18 세에서 39 세 사이의 모든 문화 공동체 와 능력이 있는 미혼이거나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거나 없는 사람, 이혼을 했거나 미망인,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실직자이거나, 투옥되거나,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이다. 이런 청년들은 실제로 성인이며,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USCCB)

만약 당신이 18 세에서 39 세 라면 서 주세요.

이 젊은 남녀들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다음 Q 모임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처럼 당신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신은 그들의 열정과 용기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설명없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손을 더럽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한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나요? 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입니다.

성녀 글라라는 집의 안락함을 떠나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 수도자가 되었을 때 겨우 19 세 이었다. 그녀는 또한 프란치스코를 따른 첫 여성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나이 24 세 때 가난한이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환자를 께안음으로써 점진적인 변모가 시작됐다. 같은 해에 성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들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이해했고 그것은 결국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해야 할 사명이 되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급진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모인 것에 힘을 얻어야 한다. 손을 더럽히고 불편하게 하기위해 도전한다. 우리는 서약 함으로써 “세상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복음적 생활에 대한 서약 예절).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4 조에 의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이 소명을 수행하며 우리의 사명을 계속 할 것 인가? 여기 3 가지의 실용적 방법이 있다: 성체 성사 참여, 우리의 증인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초대에 의한 방법이다.

1. 성체 성사

- a.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신자들에 보내신 편지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회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눈이 멀었다.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교회의 성체 성사 생활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우리가 성체를 받을 때 우리는 여정에 필수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작은 조각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 b. 성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성체 성사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
- c.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주님의 은총과 용서를 얻기 위해선 우리는 화해의 성사를 자주 해야 한다.

2. 개인 생활의 증인을 통해서

- a.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라는 구절이 1 베드로 3 장 15 절에 있다. 프란치스칸 영성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기쁨과 희망이 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주변의 사람이 누구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반드시 나누세요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 b.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i.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 과 타우 십자가를 지니는 것
- ii.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공유하기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에 대해 가르침

성인들에 대해 알게 된 후 Q 모임에서 식탁용 매트를 만들기. 지역 성당과 학교에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간 Betty Holler 에 감사드린다. 당신의 본당과 청소년 담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성소 후원회에 참여하라.

- iii. 가족 및 친구들과 당신의 신앙 여정을 공유하기

- c. 마르코 16 장 15 절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 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 마르코는 우리 에게 말 한다.
- d.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지 어떻게 목격하는가? 우리가 섬기는 가난한 사람의 손을 만지는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는가?
- e. 주교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읽는 것 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개인적인 초대

- a. 어떻게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 해보세요. 안내지에 있던 광고를 보았나요 아니면 광고판의 광고지를 보았나요? 아마 아니겠죠. 그것은 당신이 누군인지에 대한 독특함을 인식하고 당신을 이런 생활의 방식으로 맞이하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초대였어요.
- b.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중의 하나가 재속 프란치스칸 소명의 감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재속회 뿐만 아니라 사제직과 종교생활 전반에 걸쳐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종신 서약에서 약속하였던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c.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i. 당신의 가족을 초대하는 것 –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재속회원이 된 방법이다.
- ii. 사람 들을 당신과 함께 봄이나 가을에 있는 형제회의 모임에 오도록 초대하는 것. 여기가 확장된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로 강화되면, 강해지고 두려움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 급진적인 생활방식으로 초대할 수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사명을 실행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기 부여가 되게 합시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누구가 될 것인가?

모든 대화의 다섯부분의 끝에서:

영국 BBC 드라마 “Call the Midwife” (조산사를 불러 주세요)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전에 갔던 영혼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우리의 기쁨은 그들의 느꼈던 기쁨이고,
 우리의 눈물,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러므로 잃어버린 손은 살아있는 것을 움켜잡고 그들의 손길은 거룩하다.
 새롭지 않은 것들을 존중하라,
 우리가 물려받은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리고 우리의 공유되고 소중한 과거의 유령들을 들어라,
우리는 항상 지금과 같지는 않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들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른 무엇 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는 마법이며,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미래로 반복되고 울려 퍼지는 사랑의
박동입니다!”